

# 민주당 광주 5개 구청장 공천경쟁 ‘치열’

## 후보 20명 합동연설회서 공약·비전 제시

### 경선 후보간 단일화·가점 논란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주 5개 기초단체장(구청장)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20명은 지난 21일 열린 합동연설회를 통해 공약과 구정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는 한편, 후보 간 단일화 논의에 나서는 등 당내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 시당 기초단체장 경선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지난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합동연설회는 오전 10시 동구를 시작으로 11시 광산구, 오후 1시 서구, 2시 남구, 3시30분 북구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후보는 1분의 홍보 영상 상영 후 8분간의 경연 발표를 통해 핵심 공약과 구정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동구와 광산구는 3인, 서구는 2인, 남구는 5인, 북구는 7인 경선이다.

이 가운데 동·서·광산구는 24~26일 권리당원 투표(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의 구청장 후보 경선이 진행된다.

남구는 출마자 5명을 상대로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다. 또 북구에선 7명 대상의 예비경선에서 본경선 진출자 5명을 가린 후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먼저 ‘광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동구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임택 현 구청장과 노희용 전 구청장, 진선기 전 광주시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맞붙는다. 이들 가운데

### 민주당 광주 구청장 후보자 경선

자치구	후보자	경선방식	본경선	결선
동구	임택·진선기·노희용(3)	당원50+여론50		
남구	김병내·김용집·하상용·성현출·황경아(5)	당원100	2인 압축	
서구	김이강·조승환(2)	당원50+여론50		
북구	김동찬·문성필·신수정·정은지·정달성·조호권·김대원(7)	당원100	5인 압축	2인
광산구	박병규·박수기·차승제(3)	당원50+여론50		

데 노 전 구청장, 진 전 의원은 “1차 경선을 통과하는 후보를 전폭 지지하겠다”면서 단일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광주 최대 상업 요충지로 꼽히는 서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이강 현 구청장과 조승환 전 서구청 총무국장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 4명이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서대서 전 구청장,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이 잇따라 사퇴했다.

교육 중심지 남구에선 5명의 주자 중에서 현역인 김병내 구청장에 맞서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성현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 수석부회장, 하상용 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황경아 전 남구의회 의장 등 나머지 4명이 경선 결과에 따라 연대하기로 해 주목

된다.

현직 구청장의 지방선거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북구의 경우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7명이 맞붙는다. 이런 가운데 경선 주자들 사이에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가·감점 적용과 징계 전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된 박병규 현 구청장의 경쟁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박필순·이귀순 시의원과 후보 단일화로 세를 불렀다. 다른 후보인 차승제 민주당 당대표 직무 특보는 데이터 기반 AI 행정과 미래 모빌리티 실증, 30분 생활권 등을 공약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 16개 기초단체장 경선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경선 구도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은 후보가 몰리면서 예비경선을 먼저 치르는 등 지역별 경쟁 강도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수 경선 후보자 5명을 발표했다. 김경화·김행원·박석배·박우람·전경배(가나다순) 등이 경선에 참여한다.

앞서 도당은 지난 20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이재가 2명, 영암군은 우승희·전동평 2명으로 각각 경선이 진행된다. 무안군은 김산·나광국·류훈오·이해자·정승욱·최옥수 등 6명이 출마해 경쟁이 집중됐다.

후보가 몰린 여수·완도·무안에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를 먼저 가린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이후 본경선은 국민 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순천과 고흥 등 2명에서 5명 규모로 압축된 지역은 곧바로 본경선에 들어간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 6곳은 23일 발표 예정…여수·완도·무안 예비경선

### 권리당원·여론조사 50% 반영…과반 없으면 결선

경선 후보자가 확정했다. 여수시는 김순빈·김영규·백인숙·서영학·이광일·정기명·주중섭 등 7명이 이름을 올리며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순천시에는 서동욱·손훈오·오하근·한숙경·허석 등 5명, 광양시는 김태균·박성현·이종재·정인화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

나주시는 윤병태·이재태 2명, 화순군은 문행주·윤영민·임지락 3명, 담양군은 박종원·이규현·이재종 3명으로 압축됐다. 장성군은 김한중·박노원·소영호·유성수 등 4명이 경선을 치른다.

군 단위 지역도 다자 경쟁이 이어진다. 고흥군은 공영민·류제동·박준희·신소식·안정민 등 5명이 경쟁하고, 장흥군은 객태수·김성·왕윤재 3명, 강진군은 김보미·차영수 2명으로 구도가 형성됐다. 해남군은 김성주·명현관·이길은 3명이 맞붙는다.

완도군은 신익준·우홍섭·이철·지영배·허궁희 등 5명, 진도군은 김인정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특히 예비경선 이후 본경선 진출자 구성에서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없을 경우, 해당 계층 후보 가운데 1순위 1명이 추가로 포함되는 규정도 적용된다. 당내 대표성 확보와 후보 다양성 반영을 위한 장치다.

이번 경선 후보자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경선 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경선 후보자도 중앙당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강기정 광주시장,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 광주시, 고광안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고광안 행정부시장 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강기정 시장은 2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 구역 간편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 4년이 지역미래를 결정할 중요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실천 경험으로 갈등을 돌파하고 ‘인(In) 광주, 인(In) 전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18년간 표류했던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복합소공밀 차공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급진한 현안을 해결해온 검증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통합을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신이 곧 민심이며, 민심이 곧 당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시민들과 당원들을 믿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인 ‘부강한 광주·전남’ 실현을 위한 권역별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특별 시민수당 도입’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기본소득 기반 기본사회 실현 구상도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강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2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임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통합 시장 예비경선 통과 후보들 “당원에 감사”

### 메시지 잇따라…“통합특별시 완성” 각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당원과 시민들에게 일제히 감사의 뜻을 밝히며 본경선 승리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위대한 민주당원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며 “소중한 표를 행사해 준 당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광주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통합 1호 특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에서 있다”며 “앞으로 4년 이 미래 100년을 좌우할 것인 만큼 첫 단추를 제대로 꿰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당원의 힘으로 본경선에 올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특별시민의 꿈을 위해 뛰겠다

다. 과반 득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후보는 “전남과 광주가 나란히 통합하고 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해 준 결과”라며 “본경선에서도 솔림과 소의 없는 균형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후보도 “당당한 경쟁과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더 큰 비전과 치열한 준비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과 광주가 함께 도약하는 통합의 길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후보는 “보내준 지지에 담긴 책

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어른신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예비경선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차영수, 강진군수 예비후보 등록…“예산 1조원 시대 열겠다”

### 재선 도의원·도의회 예결위원장 경력 앞세워 본격 행보

### 체류 관광·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 3대 비전 제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영수 전남도의원(사진)이 22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차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 직후 발표한 출마 소견에서 “강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가장 먼저 강진군 예산 1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예산 확대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며 “강진의 살림 규모를 키워 지역 발전의 확실한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강진의 미래 비전으로 ‘머무는 강진’, ‘일하는 강진’, ‘돌아오는 강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머무는 강진’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



지가 아니라 휴양과 힐링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강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가 구상이다.

‘일하는 강진’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어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돌아오는 강진’은 교육·의료·주거 등 생애 주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떠났던 군민이 다시 돌아오고 외지인도 정착을 고민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재선 도의원 출신인 차 예비후보는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내며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차 예비후보 측은 전남도 전체 예산 심의·조정 경험과 강진 관련 예산 확보 실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 예비후보는 “군수는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재선 도의원으로 검증 받은 경험과 실행력으로 강진의 해묵은 과제를 풀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강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차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 민생 현장을 찾아 군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오는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과 3대 비전 실현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노희용·진선기, 임택 후보 맞서 단일화

### 결선 진출 후보 전폭 지지키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2명이 3선 도전에 나선 같은당 임택 동구청장(직무정지 상태)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노희용·진선기 두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구청장의 3선 장기 집권을 막고 동구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일화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동구민의 바람에 대한 응답이다”며 “동구는 8년 동안 비전 없이 정체됐고 행정 무능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일화는 갈등이 아니라 화합의 선택”이라며 “경쟁을 넘어



노희용 (왼쪽)과 진선기 (오른쪽)

협력으로,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현직 임택 구청장, 두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은 당원경선 방식을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두 후보는 임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결선 진출자에게 표심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협의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경선, 목포시장 출마 접고 도의원 선거 선회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경선 2명 후보의 맞대결로 재편됐다.

22일 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전남 SNS를 통해 전경선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목포시 5선거구에 출마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 예비후보가 도의원 연임 도전으로 선회하면서,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은 강성휘·이호균 등 2명의 후보가 남게 됐다.



전 예비후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요청으로 복당했으나 이번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특별 복당’을 인정받지 못해 25% 감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위원장은 전 예비후보의 목포시장 경선 참여 배경은 자신의 제안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